

(특강-6)

고려홍삼이 건강인의 사상체질에 미치는 임상적 연구

이의주^{*}, 고병희^{*}, 김성훈^{**}, 남기열^{***}, 송일병^{*}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국인삼연초연구원

한의학의 사상체질의학적 입장에서 고려홍삼의 적용은 대부분 문헌 및 경험에 의한 활용이었다. 본 연구는 실험적으로 건강한 사상인을 대상으로 고려홍삼 복용에 따른 임상적 증상과 이화학적 검사의 이상유무를 검토하였다.

1997. 6. 1 ~ 1997. 12. 31 사이에 남자 141명, 여자 47명 (30세미만은 25.6 ± 2.5 세, 30세 이상은 37.19 ± 6.05 세로 학생과 일반인으로 구분) 총 188명을 대상으로 홍삼 투여군 130 명에게는 홍삼 3 g/일 (300 mg 캡슐 10개), 위약 투여군 58명에게는 옥수수 전분 3 g/일을 4주간 투여하였다. 홍삼 투여군은 체질상으로 태음인 43명(33.1%), 소음인 58명(44.6%), 소양인 29명(22.3%)이었고, 위약군은 태음인 24명(41.4%), 소음인 19명(32.8%), 소양인 15명(25.9%)이었다.

홍삼 투여 후 임상적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설문조사(각각적 증상의 변화, 피로도, 불안도, 우울도)와 임상검사(체열진단기, 일반혈액검사, 일반생화학검사, 뇨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고려홍삼은 수면장애, 식욕감퇴, 피로, 상복부불쾌감 등을 감소시키며 정신집중에 효과를 나타내었고, 상열, 상기, 소화불량, 배변불쾌감 및 개스참, 가슴답답, 더위, 안면홍조, 가려움증, 피부건조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었다.
2. 고려홍삼은 신체적·정신적 피로도, 우울도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補元氣, 安精神 定魂魄 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P<0.05$)
3. 고려홍삼은 전신 체열의 상승을 유도하였지만 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홍부에서는 유의적인 체열상승의 효과가 있었다. 이것은 補五臟之陽, 补心肺之陽氣 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P<0.05$)

4. 본 연구에서 검토한 고려홍삼의 효능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자각적 증상에서 30대 미만군은 변화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5. 자각적 증상의 변화는 체질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반응의 빈도를 살펴보면, 소음인에게는 순작용으로 작용하고, 태음인에서 일부 역작용을 나타냈다.

6. 고려홍삼은 少陽人 홍부의 체열을 유의적으로 상승시키고, 少陰人 상복부의 체열을 유의적으로 상승시켰다. ($P<0.05$)

7. 부작용이 나타나 복용 7일이내에 중단한 대상자는 11명(5.9 %)으로 홍삼 투여군 8명(소음인 5인, 소양인 2인, 태음인 1인; 6.2 %)과 위약군 3명(소음인 2인, 태음인 1인; 5.2 %)이었다. 이들의 임상검사 상의 이상은 없었다.

8. 홍삼 투여군에서 소음인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체질병증운용에 적합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음인일지라도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단미가 아닌 복합제제를 사용하였으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소양인과 태음인은 소량의 홍삼이라도 火熱症과 燥熱症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부작용을 나타낸다고 추측된다.

고려홍삼은 補元氣, 補五臟之陽氣의 목적으로 건강인에게 투여가 가능하나 소수의 경우(5.9%)에서 체질병증운용에 적합하지 않아 자각적 증상의 불편함 및 부작용이 있었다.

구 두 발 표